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안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가쿠인 대학교	파견기간	2019.08.24~2020.04.18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OGU(Osakagakuin Uni)는 한큐선 쇼자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JR선의 키시베역으로 다녔지만 거리로만 따지면 쇼자쿠역이 더 가깝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컴퓨터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시설 등은 최근 공사를 마쳐서인지 깨끗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들은 국제센터라는 건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어 수업을 마친 일본인 학생들과의 교류도 가능합니다.</p>
2019-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저보다 먼저 다녀오신 교환학생분들의 후기에도 잘 나와있기에 간단하게 적겠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JSL 수업(매주 월~금 / 아침 9시~11시10분 / 필수 수업) 이 수업은 유학생 필수 수업입니다. OT기간동안 레벨테스트를 통해 J~D반으로 나뉘어지게 되며(J가 초급, D가 상급입니다.) 약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외국친구들과 일본어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매일 1교시인점이 힘들지만 강제로 부지런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독해와 쓰기 스킬(선택 수업) 수업 시작 전 30개 남짓한 한자 소테스트를 본 후 일본의 문화, 역사, 사회, 경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 뉴스기사나 장문의 글을 읽고 쓰는 수업입니다. 3) 상급 일본어 회화(선택 수업) 수업시간에 일상, 아르바이트, 경어 등 전반적인 일본어 회화의 내용으로 수업합니다. 다만 다른 반인 초급,중급 반과는 다르게

	<p>일본인들도 어려워하는 경어 위주로 나온 대화문을 공부하고 외워서 발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p> <p>4) 국제 개발 협력(영어로 진행/ 선택 수업) 국제 개발 협력의 수업은 작은 범위에서는 NGO, 개발도상국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며 큰 범위에서는 UNDP등 전반적인 각 나라의 국제 개발에 관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협력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참고로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저와 중국인 학생 2명에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학생수가 적어 걱정했지만 오히려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잘 되어 만족한 수업이었습니다.</p>
<p>2020-1학기 수업</p>	<p>저는 4학년(마지막학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2020-1학기에는 필수 및 선택 과목 1과목만 수강하였습니다. 다른 유학생분들은 듣고 싶으신 과목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p> <p>1) 위와 동일합니다. 2) 영화로 배우는 일본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영화를 보며 청해능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사실 영화의 스크립트를 구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나 교수님께서 외국인이 헛갈릴만한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아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저보다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OGU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혹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OGU를 선택함에 있어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떤 교직원분들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환을 한 2019~2020년에는 OT기간에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등등 A4용지에 잘 정리해서 배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달에 한 번 주말(토 or 일)에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도 있지만 일본의 손수건에 그림을 넣거나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쉽게 찾지 못하는 명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말활동을 하게 되면 평일 하루 수업을 면제해주었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p> <p>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상황에서도 체온계 대여, 상시 손소독제 비치등 위기상황관리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여름 : 정말 덥습니다. 반팔, 반바지만 입었는데도 땀이 줄줄 납니다. 겨울은 한국보다 춥지 않으니 반팔 혹은 얇은 긴팔 위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기! 거의 없었습니다.</p> <p>겨울 : 한국보다 따뜻했습니다. 혹시나해서 롱패딩을 들고 갔는데 딱 한 번 밖에 입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실내에 들어가서 벗으면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두꺼운 긴 팔 혹은 얇은 가디건 걸치기 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홈스테이를 하였고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 걱정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기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p> <p>하지만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비를 걸렸거나 험한으로 차별(?)받는 일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고 홈스테이를 할까 기숙사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에 지원한 것이기에 '홈스테이'라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p> <p>분위기는 호스트패밀리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저 세 명 뿐이었습니다. 규칙은 따로 없었고 숙소는 2층에 저만 사용가능한 방과 침대 책상 등 기본적인 것들이 놓여있었습니다.</p> <p>저는 결과적으로 호스트패밀리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다른 홈스테이를 신청한 유학생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집에 어린 아이가 있거나 사춘기의 아이가 있으면 놀아주거나 하는데 조금은 귀찮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혹시 예민하시거나 하신 분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p> <p>다만 외국에 나가서 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배울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식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은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침을 챙겨먹지 않았지만 챙겨주시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귀국할 때 건강과 살을 얻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제가 홈스테이를 했던 곳은 츠루하시역(한인타운) 근처였습니다. JR 츠루하시 -> JR 오사카 -> JR 키시베역(약 30분 소요)을 이용했습니다. 아침마다 한국의 1호선 지옥철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사는 곳은 다 똑같듯이 적응하게 되면 정말 내가 일본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용은 학생 정기권으로 한 달에 6만원정도 들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약 90~100만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50000	제주항공 편도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순천향대학교 등록금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일본국민건강보험료 이외 없음 (한 달에 약 2000엔)
숙소	600000	홈스테이(한 달에 55000엔)
식비	200000	점심값만 지출(한 달에 약 2만엔)
교통비	60000	학생 정기권(한 달에 약 6000엔)
책값	30000	한 학기에 약 3000엔
기타1	120000	USJ 1년 정기권
기타2		
합계	약 90~100만원(한 달 기준)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기본적인 짐을 챙기는 사항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니 꼭 참고해주세요!

저는 홈스테이여서 상관없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겨울에 전기장판이 꼭 필수라고 이야기하곤 해서 전기장판은 잘 알아보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고싶은 말은 저의 경우 일본에 오기 전에 JLPT N2와 JPT 700점대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에 와보니 아무리 많이 알고 좋은 급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한 마디도 못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드라마나 애니를 보거나 일본인 친구를 잘 사귀어서 매일 말한 친구는 회화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까운 위치에서 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어 실력과 자격증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외향적이어서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성적이고 정말 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와서 직접 말하고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나 역사를 직접 피부로 느껴보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P.S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들은 꼭 재류자격외신청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위에도 서술했듯이 저는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끼니 걱정, 치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호스트패밀리와 함께 자주 놀러다니면서 정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강이나 독학으로 일본어 문법과 단어를 달달 외우기만 했었다면 실제로 일본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생각이 어떤 것인지 조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6개월 단기의 교환학생에게는 일본어 공부만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지만 경험을 중요시한다면 정말 꼭! 꼭! 아르바이트를 추천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사귀 일본인 친구가 소개해준 이자카야와 관광객들의 성지 돈키호테에서 8개월 중 약 4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일을 배우면서 혼나기도 하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쩌면 딱딱한 수업보다도 일상생활에 녹아들었던 경험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각자의 억양이나 발음이 다르듯이 일본인들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은 잘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교류할 수 있는 교환학생에 지원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도톤보리 할로윈파티



가을의 청수사(기요미즈데라)



숨어있는 교토의 스타벅스



USJ의 크리스마스



라면박물관



오사카성 벚꽃놀이